

美 '한국어 이중언어반' 개설

미국 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는 '이중언어반'이 점차 확산해 한국어 교육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A 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과 한국어 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초등학교 교육구 최초로 2019년 가을학기부터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교장 샌드라 스톤)에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개설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어 이중언어반은 한국어, 영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두 언어를 동시에 전수하면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동성애 투석사형' 주변국 침묵

브루나이가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등 내용이 담긴 새 형법을 시행한 데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동남아 주변국 대다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7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아세안 말레이시아 대표부의 샤리파 노르하나 무스타파 대사는 아세안 이이 문제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샤리아는 여러 조건상 (오용되기가) 쉽지 않다. 서방은 (우리) 전통 등을 몰라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유지"

공화당 지지 유대인 행사 연설서 유화적 메시지 "올바른 합의 있어야" ... 대화 의지 속 '빅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강조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향한 '빅딜' 압박 수위도 높

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계열인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북미대화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여에 걸친 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한 후에 나왔

다. 이란 정부의 핵 개발 야욕을 강력히 성토했던 그는 북한을 향해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고 운을 뗐 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지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취임했을 때, 그들은 로켓과 핵폭발(explosion)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지난해 초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된 후 북한이 더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다"고 선부른 예단을 자제하면서 "한 번의 협상(deal)에서는 걸어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2일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춘계 만찬에서 소개한 데 이는 발언으로, 추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빅딜 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총리 "브렉시트 의회 전략 실패"

"가까운 미래 통과도 어려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지지를 얻어 내려던 전략은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이제는 유럽연합(EU)과의 합의로 EU를 떠나거나 아예 떠나지 않는 것 사이의 냉혹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총리실을 통해 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영국은 애초 지난달 29일 EU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오는 12일로 한차례 미뤘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3차례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면서 메이 총리는 EU 측에 오는 6월 30일까

지 추가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의 합의안이 3번째 의회 통과에 실패한 직후 당내 강경 브렉시트 파보다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야당 노동당 쪽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제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만나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의회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노동당 쪽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자유로운 이동을 끝내고 좋은 합의 아래 떠나기를 원한다거나 일자리 보호를 원한다는 점은 주요 양당이 공히 원하는 바"라며 "이는 의회 과반수 획득을 끌어낼 수 있는 타협의 토대로, 과반수를 얻는 것은 브렉시트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로 이맛이야"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동물원에서 수컷 대왕판다 한 마리가 사육장 안에서 대나무를 먹고 있다. 지금은 판다의 짝짓기 철이다. /연합뉴스

중정부 온라인 대출업체 단속에 거리시위

중국 정부가 온라인 개인 간(P2P) 대출업체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동관(東莞)시 정부는 최근 허위 재테크 상품을 설계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P2P 대출업체 '판다이왕(團貸網)' 관계자 44명을

체포했다. 판다이왕 경영진의 체포 소식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잃을까 봐 두려워진 투자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전날 동관 시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천여 명의 투자자들은 동관 시내 시민광장에 모여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려고 했다. /연합뉴스

G7 외무장관들 "북미 비핵화 협상 지속해야"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 약속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6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속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이날 프랑스 디나르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후 내놓은 코뮌iqué에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도발도 하지 말도록 촉

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공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니셜인 'DPRK'를 사용하면서 "DPRK가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유감"이라며 "국제적 무를 준수·이행하고 이러한 조치들

을 실행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한 운송 시스템을 폐기하게끔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G7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도 제재 이행을 요구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본은 미국의 대북 외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을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